

강진군, 농업소득 배가 5개년 계획 시동

수도작·원예·축산·임업분야 및 젊은 농업인 토론회 개최

농림축산업 전폭 지원 통해 농업인 연소득 6천만원 달성 목표

강진군이 농림축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강진군 농업인 연소득 6천만원 달성을 위해 달린다.

강진군은 지난 12일 강진군 시문 학과기념관 세미나실에서 농업소득 배가에 대해 논의 하는 관계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관계자 토론회에는 수도작, 원예, 축산, 임업분야 및 젊은 농업인 등 농업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농업소득배가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2018년을 '농업소득 배가 원년의 해'로 정하고 소득 배가 5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며 "농업시장이 FTA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잘사는 농업인, 살맛 나는 농촌 건설을 목표로 농업소득 배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진군은 이번 '농업소득 배가 5개년 계획'의 비전을 한미 FTA 재협상 등 시장개방에 대한 농업경쟁력 및 생존권 확보, 선진농정 추진 등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복지농촌 조성에 두고 있다.

강진군은 비전 실현을 위해 강진군 농업발전 중장기 종합계획 및 소득향상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대규모 농업인과 소규모 농업인이 고루 잘 사는 농촌 만들기에 전력한다.

이와 함께 농업분야 10대·3030 프로젝트와 이미 수립돼 추진중인 2014~2018년 농업발전계획을 보완·연계하며, 계획기간내 강진군 농가별 소득 6천만원 달성을 위한 연차별 목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해 나갈 계획이다.

강진군이 구체적으로 밝힌 농정 목표는 오는 2022년까지 농가소득 6천만원 달성이다. 이는 곧 강진 농업인 모두가 365일 내내 웃음과 보람이 있는 농업을 실현한다는 의미가 된다. '강진농정 365프로젝트'라 이름 지었다.

이 프로젝트 완성을 위해 강진원 군수를 비롯한 모든 공무원이 2018년 농업소득 배가 원년을 맞아 1년 365일 농업과 농업인을 위해 일하며 봉사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했다.

강진군은 농업소득 배가 원년의 해인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를 '농림축산업 소득향상 5개년 계획' 기간으로 잡고 공무원 TF팀을 구성했으며, 친환경농업과정을 총괄책임자로 농업분야 축산분야 산림분야, 농업기반 기술분야로 나눠 해당 과별 팀장급을 TF에 소속시켰다.

TF가 내놓은 추진전략은 크게 다섯 가지다.

FTA에 따른 농수산물 시장 개방으로 쌀값이 경쟁력을 잃고 농지재인상으로 농업존립기반이 붕괴된 점을 고려해 경영안정자금 대상 대폭 확대 등 농업인이 행복한 농업기반 구축과 미래성장 녹색축산 확충, 산림 자원의 다원적 가치 증진, 농업기술보급, 농업 생산시설 정비 등이다.

강진군은 관계자 토론회에 이어 생명산업 정책위원회 의결을 수렴하고 12월 중순 농업발전 5개년 계획을 최종 확정해, 2018년 1월중 2018년 농업소득 배가 원년의 해 선 포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강진원 군수는 "농업이 주력산업인 강진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농업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면서 "강진군정의 최종 목표는 농업인, 군민이 모두 잘 사는 것임을 농업소득 배가 5개년 계획수립과 실천을 통해 더욱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최제영 기자



곡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곡성군은 지난 12일 곡성군 관내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원만한 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성공적인 사회 적응을 도모하기 위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를 소동미루에서 개최했다.

곡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는 곡성군청, 곡성경찰서, 곡성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과 단체 위원 15명으로 새롭게 구성하였으며, 위촉직 위원 11명에 대하여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이번 회의는 각 기관별 2017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성과를 공유·평가하고 2018년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 및 지문으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개최했다.

군 관계자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문제 해결에 적극 임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광희 기자



"기아타이거즈와 해남 야구 꿈나무 만났어요"

홍건희·임기영·한승택 해남리틀야구단 야구교실

2017 한국시리즈 우승팀 기아타이거즈 선수들이 해남 야구 꿈나무들을 찾았다.

기아타이거즈 소속 투수 홍건희와 임기영, 포수 한승택 선수는 12일 해남 리틀야구단을 찾아 1시간여 동안 일일 코치로 어린이 선수들을 지도했다.

해남 대흥사 인조잔디구장에서 열린 일일 야구교실은 프로야구의 축망받는 영건(YOUNG GUN)과 한국 야구의 미래를 책임질 유소년 선수들의 만남으로 관심을 모았다.

해남리틀야구단은 지난 8월 제1회 악산시장이 전국리틀야구대회 우승에 이어 나주에서 열린 하계 스포브리그 전국유소년 야구대회에 출전해 우승을 차지하는 등 창단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신생팀이 전국 대회에서 잇따라 우승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하며 명문팀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해남에서는 내년 2월경 제1회 땅끝배전

국리틀야구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해남 리틀야구단 박중엽 감독과의 프로선수 시절 인연이 이어져 마련된 것으로 야구교실 후 사인회와 기념촬영을 함께하며 격려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박중엽 감독은 "프로야구 우승팀과 만남을 통해 어린 선수들의 사기진작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꿈과 열정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훌륭한 야구선수로 성장하리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

◆ 광주 지역 안내			
계림 010-3635-7195	백운 010-2943-8374	광산 010-5604-6533	
중앙 010-3365-6200	광산 010-5604-6533	송하 010-8620-1925	
학운 010-4166-1810	송하 010-8620-1925	임동 010-2656-4543	
광천 010-6612-8599	임동 010-2656-4543	양산 010-2646-3205	
금호 010-6636-2775	양산 010-2646-3205	오치 010-7532-3313	
상무 010-5359-7406	오치 010-7532-3313	북구 010-4601-2080	
풍암 010-6634-5084	북구 010-4601-2080	동운 018-611-7751	
화정 010-8438-3819	동운 018-611-7751	용봉 010-4601-2080	
봉선 010-9474-0212	용봉 010-4601-2080	두암 010-2684-6091	
진월 010-2615-8374	두암 010-2684-6091		
◆ 시 외 안내			
강진 010-4606-0660	영암 010-5655-2415		
담양 010-3629-9016	완도 010-9578-5900		
무안 010-5234-2313	장성 010-5287-7711		
보성 061-853-9125	장흥 010-6234-6226		
순천 010-2300-9083	진도 010-3081-5203		
광양 010-5604-6981	함평 010-3625-3160		
여수 010-6655-8503	화순 010-2077-6464		
영광 010-3611-3081	곡성 010-3615-1088		

화순 이서적벽

“지역언론의 마름길을 열어줍니다”

湖南新聞

전라도의 정문지

▶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및 독자 의견 (062) 224-5800

이메일 : ihonam@naver.com

팩스 : (062)222-5548

▶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 번지 정도프라자 5층)



영암군 달뜨는 집 제11호 입주식 개최

덕진면 원용산 마을...생필품 등 후원품도 전달

영암군이 지난 12일, 전국 최고의 주거복지 명품모델로 각광을 받고 있는 '달뜨는 집 제11호' 입주식을 개최했다.

입주 가족은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던 3세대 4명. 이로써 영암군 11개 읍면 중에서 유일하게 달뜨는 집이 없던 덕진면에도 명품주거복지 시설인 보금자리 다가족주택이 들어서게 되었다.

이날 입주식에는 눈비림이 휘날리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동평 영암군수를 비롯한 영암군 덕진면의 기관사회단체장과 이장단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축하를 해주었다.

특히, 영암군 남내새마을지회와 덕진면 새마을지도자 남내 협의회 등이 쌀과 라면, 이불, 생필품 등 후원품을 전달하였으며, 임상순 이장을 비롯한 원용산 마을 주민들도 새로 입주한 주민들을 따뜻하게 환영해 주었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축하인사를

통하여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문제와 열쇠를 전달하고 격려했으며,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의 보금자리에서 생활하게 된 입주주민들은 연신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주거복지의 최우수 명품으로 전국에 널리 알려진 영암군의 달뜨는 집 건립사업은 당사 세집을 미련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을 위해 보금자리를 순수 군비로 건립하여 무료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으로 입주 후에도 입주주민들의 안전관리는 물론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입주식을 계기로 영암군 11개 읍면에 건립된 달뜨는 집 11동에 있는 이제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등 총 45세대 88명이 안락하고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은홍 기자

목포시, 신재생에너지로 청정도시 만든다

10억4천만원 확보...외달도·율도 태양광·태양열 시설 설치

목포시가 신재생에너지로 청정도시를 만들어간다.

목포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2018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총사업비 21억 중 국비 10억4천만원을 확보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기존 개별지원에서 탈피해 특정지역 또는 건물에 2종류 이상의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목포시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외달도와 율도를 에너지 지립섬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공모에 참여했다.

목포시는 태양광 및 태양열 시설을 율도와 외달도의 주택, 경로당, 파출소 등 44개소 공영장과 수영장 등 시민문화체육센터 2개소에 각각 설치한다. 이번 사업이 마무리되면 연간 321톤(석유환산톤)의 화석에너지 대체효과와 570톤의 이산화탄소 절감 효과, 연간 약 1억5천만원의 에너지 사용비용 절감효과 등이 기대된다.